

水路夫人說話와 <獻花歌>

金銀洙*

<차례>

- | | |
|-------------------|-------------------|
| I. 머리말 | IV. 수로부인설화의 문맥 |
| II. 수로부인과 노인 | V. 설화의 문맥에서 본 헌화가 |
| III. 성덕왕대의 사회적 배경 | VI. 맺음말 |

I. 머리말

<獻花歌>는 『三國遺事』 권2 紀異編 水路夫人 설화에 수록된 鄉歌이다. 이것은 4구체 향가로 신라 聖德王(702~737) 때에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노인이 지은 것이다. 향가는 표기수단인 향찰 해독의 한계와, 천 년을 넘어선 시대와 문화의 거리에서 오는 이해의 한계를 도외시킬 수 없다.

향찰의 해독은 양주동의 고가연구가 나와 획기적인 공헌을 했고, 다시 많은 학자들에 의해 상당한 진전을 보고 있지만, 완전한 해독을 하기에는 아직도 불가능한 요소들이 많다. 이러한 문제는 이제 당시의 민속이나 문화 역사 등의 정리를 통한 보완에 기대해야 할 것으로 본다. 근래에 이러한 방향에 눈을 돌리고 있는 점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작품의 정확한 이해와 평가를 위해 바람직한 일이다.

<헌화가>는 향가 중에서도 난해한 작품에 속한다. 난해성은 노인이 어려움을 무릅쓰고 꽃을 꺾어 미모의 여인인 수로부인에게 바쳤다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이러한 작품 주변의 몇 가지 사항들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주장을 가능하게 했다. 수로부인은 누구인가, 노옹은 누구인가, 하는 사항들이 바로 그것이다. 연구자들은 수로부인을 귀족 출신의 아름다운 미인, 또는 무당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 노옹에 대해서는 禪僧, 山神靈, 巫堂, 司祭, 村老 등과 결부시키고 있다.

‘老翁牽犝牛’에 의미를 두면 노옹은 자신의 尋牛를 끌고 가는 牧牛者 즉 禪僧¹⁾이거나, 山神役을 맡은 사람이 소를 거꾸로 타고 내려오는 神格²⁾으로 이해할 수 있고, ‘不知何許人’과 ‘非人跡所到’를 ‘海岸孤絕處普陀洛迦山’이라는 觀音의 常住處로 이해하면 노옹은 관음의 變身³⁾이다. 그리고 ‘不知何許人’·‘老翁牽犝牛’·‘非人跡所到’의 기록을 몽땅그려 노옹을 神仙⁴⁾이나 降神舞들이 神病 과정에서 보는 하얀 할아버지⁵⁾로 상정하기도 한다. 또한 후반부의 납치담을 결부시켜서 헌화한 노옹을 용의 변신⁶⁾이거나 구출하는 과정과 성덕왕대의 旱災에 비중을 두고, 노옹-노인을 그 지역의 기우제를 담당했던 司祭로 보기도⁷⁾ 한다. 반면에 ‘不知何許人’·‘老翁牽犝牛’·‘非人跡所到’에 의미를 크게 두지 않을 경우 노옹은 村老⁸⁾이거나 農夫⁹⁾로 해석하기도 한다.

* 광주대학교

- 1) 김종우, 『향가문학연구』, 이우출판사, 1983, 30~33쪽.
김광순, 「헌화가」, 김승찬 편, 『향가문학론』, 새문사, 1991, 273~274쪽.
- 2) 조동일, 『삼국시대 설화의 뜻풀이』, 집문당, 1990, 27쪽.
- 3) 김운학, 『신라불교문학연구』, 현암사, 1973, 243쪽.
- 4) 김선기, 「꽃받던 노래」, 『현대문학』 153호, 1967, 9, 352쪽.
- 5) 장진호, 『신라향가의 연구』, 형설출판사, 1993, 80쪽.
- 6) 김현용, 『한국고대설화론』, 새문사, 1984, 250쪽.
- 7) 김문태, 「헌화가해가의 제의문맥」, 『고전시가의 이념과 표상』(임하 최진원박사 정년기념논총) 1991, 95쪽.
- 8) 윤영옥, 『신라시가의 연구』, 형설출판사, 1980, 171쪽.
- 9) 박노준, 『신라가요의 연구』, 열화당, 1990, 201쪽.

이 글에서는 이러한 여러 연구들을 토대로 하여, 수로부인 설화를 사회적·역사적 맥락에서 사실적으로 분석하면서 <헌화가>를 이해해보고자 한다.

수로부인 설화를 보면 다음과 같다.

聖德王(702-737) 때에 純貞公이 江陵(지금의 溟州)으로 부임해가는 도중에, 어느 바닷가에서 점심을 먹고 있던 참이었다. 그 옆에는 병풍처럼 펼쳐진 바위 절벽이 바다에 맞닿아 있는데 높이가 천 길이나 되었으며 그 위에는 철쭉꽃이 만발해 있었다. 순정공의 부인 水路는 그 꽃을 보고 옆 사람에게 말했다. “저 꽃을 꺾어다 줄 사람이 누구인가?” 그러자 모시는 사람들이 말했다. “사람이 발붙일 곳이 못 됩니다.” 그들은 모두들 불가능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그때 마침 한 노인이 암소를 끌고 지나다가 부인의 말을 듣고 철쭉꽃을 꺾어 가지고 와, 또한 노래도 지어 부르며 바쳤다. 그 노인은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 없었다.

다시 이틀 동안 길을 가다가 바닷가 정자에서 점심을 먹는데 갑자기 海龍이 나타나 부인을 끌고 바다로 들어갔다. 순정공은 발을 동동 구르며 땅을 쳐 보았지만 아무 방법이 없었다. 마침 곁에 있던 한 노인이 말했다. “옛말에 여러 사람의 입은 쇠도 녹인다고 했으니, 이제 바다의 짐승인들 어찌 여러 사람의 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습니까. 마땅히 부근 사람들에 부탁하여 노래를 지어 부르며 몽둥이로 바닷가 언덕을 치면 부인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순정공이 그 말대로 하였더니 龍이 夫人을 받들고 나와 바치었다.

순정공이 부인에게 바다에서 있었던 일을 물으니 부인이 말했다. “七寶宮殿에 飲食이 맛있고 향기롭고 깨끗하여 人間世上의 요리가 아니었습니다.” 夫人의 옷에 배인 특이한 향기는 인간 세상에서 맡아볼 수 없는 것이었다. 水路夫人은 絶世美容이었기 때문에 깊은 산과 큰 못을 지날 때마다 여러 차례 神物에게 붙잡히게 되었던 것이다.¹⁰⁾

10) 聖德王代 純貞公赴江陵太守(今溟州) 行次海汀晝膳 傍有石嶂 如屏臨海 高千丈 上有躑躅花盛開 公之夫人水路見之 謂左右曰 折花獻者其誰 從者曰 非人跡所到 皆辭不能 傍有老翁牽犂牛而過者 聞夫人言 折其花 亦作歌詞獻之 其翁不知何許人也 便行二日程 又有臨海汀晝膳次 海龍忽攬夫人入海 公顛倒躓地 計無所出 又有一老人 告曰 故人言 衆口鑠金 今海中傍生 何不畏衆口乎 宜進界內民 作歌唱之 以杖打岸 可見夫人矣 公從之 龍奉夫人出海獻

<獻花歌>와 <海歌詞>는 다음과 같다.

紫布岩乎邊希	자춧빛 바위 가에
執音乎手母牛放教遣	잡은 손 암소 놓으시고
吾盼不喻慚份伊賜等	나를 아니 부끄러이 하려든
花盼折叱可獻乎理音如	꽃을 꺾어 바치오리다

龜乎龜乎出水路	거북아 거북아 수로부인을 내놓아라.
掠人婦女罪何極	남의 婦女를 빼아간 죄가 얼마나 크냐.
汝若悖逆不出獻	네가 만일 거역하고 내놓지 않으면
入網捕掠燔之喫	그물로 잡아 구어먹으리라

삼국유사 찬술이 그러하지만, 특히 <헌화가>는 수로부인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설화요, 향가 중심으로 기술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설화 기술을 위해 그 방증 자료로 향가를 포함시킨 기술방식이다.¹¹⁾

II. 수로부인과 노인

1. 水路夫人

水路夫人은 어떤 사람일까? 의견상으로는 강릉태수로 부임해 가는 순정공 부인이다. 그러나 그의 실제 정체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삼국유사 수로부인 설화는 제목이나 이야기의 전개과정에서 드러난 것을 보더라도 중심인물이 수로부인이다. <獻花歌>나 <海歌詞>에 문학적으로 소

之 公問夫人海中事 曰七寶宮殿 所儲甘滑香潔 非人間煙火 此夫人衣襲異香 非世所聞 水路
 姿容絕代 每經過深山大澤 屢被神物掠攬(『三國遺事』二卷).

11) 홍기삼, 『향가설화문학』, 민음사, 1997, 117쪽.

중한 의미를 부여하게 된 것은 후대의 일이다. 一然이 『삼국유사』를 기록할 당시만 하더라도 이 설화의 비중은 수로부인의 행적에 두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수로부인은 성덕왕 시대에 순정공의 아내로 미모가 뛰어났다고 묘사되어 있다. 그녀는 남편의 부임길을 따라가면서 두 가지의 구체적 사건을 경험한다. 노인으로부터 낭떠러지에서 꺾어 온 꽃을 받는 사건과, 동해 용에게 납치되었다가 풀려나는 사건이다. 물론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그 외에도 몇 가지 사건이 더 일어났다. 수로부인은 용모가 뛰어났으므로 깊은 산이나 큰 연못을 지날 때마다 자주 신물에 납치되었다(水路姿容絶代 每經過深山大澤 屢被神物掠攬)는 것이다.

미모의 여인이 노인에게 꽃을 받는 것이나 용에게 납치되었다 돌아오는 것은 흥미로운 얘기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해서는 대체로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첫째는 아름다움의 화신으로 보자는 것이다. 박노준·윤영옥·김종우의 주장이 여기에 속한다.

<헌화가>의 주제는 남녀간의 애정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예를 몇 개 들어본다. 윤영옥은 탐미의 미녀 앞에서 완악한 완부가 부른 애정시로서 미녀의 요청에 봉사하는 기사로 변모하는 과정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라 하고¹²⁾, 김종우는 미모의 여인인 수로를 보자 노인이 남성으로서의 심적 동요를 일으켜 부른 노래라고¹³⁾ 했다. 또 박노준은 노옹과 수로부인의 나이와 신분의 격차, 그들이 조우했을 때의 정황 등으로 미루어 보아 노옹의 일방적인 짝사랑을 노래한 애정의 헌시로¹⁴⁾, 김광순은 절세미인인 수로에게 인간의 본성인 사랑을 고백한 노래라고¹⁵⁾ 했다.

이러한 주장은 우선 ‘獻花歌’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서는 수궁할

12) 윤영옥, 앞의 책, 176쪽.

13) 김종우, 앞의 책, 30~31.

14) 박노준, 『신라가요의 연구』, 열화당, 1982, 210~211쪽.

15) 김광순, 「헌화가」, 김승찬 편, 같은 책, 278쪽.

수 있는 견해들이다. 그러나 牽牛老人의 존재, 牝牛가 뜻하는 의미, 노인과 절세미인의 사랑의 가능성 여부 등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또, <현화가>는 노래 자체의 어휘 해석에서도 달리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뒤에 나오는 <海歌詞>와 연관시켜 볼 때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말하자면 이런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연구방법이 요청된다.

수로부인은 귀족계급 출신으로 교양미와 심미안이 있는 사람이다. 수로부인과 꽃과의 만남은 인간과 자연과의 만남이라는 차원을 뛰어넘어 ‘꽃과 꽃과의 만남’ ‘美와 美끼리의 만남’으로 해석될 수 있다. 꽃은 누구나 사랑하고 좋아하는 자연의 精華다. (중략)

일반적으로 느끼는 꽃에 대한 인상이나 인식을 훨씬 능가하였으리라 판단된다. 그것은 곧바로 욕망이라는 형태의 것으로 나타났다. 꽃과의 일정한 거리를 두고 멀리 떨어져서 그 꽃의 아름다움을 눈으로만 음미하고 玩賞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유의 욕망이 아니라 어떠한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꺾어서 손으로 만져 보고 싶어 하는 ‘所有의 욕망’ 바로 그것이었다. 꽃이 꽃을 갖고자 하는 욕망이었고 美가 美를 포용하고자 하는 욕망이었다. 바로 이것이 그때 수로부인이 느낀 가장 소박하고 순수한 마음이었을 것이라고 해석하고 싶다.¹⁶⁾

박노준은 美의 精華인 철쭉꽃에 탐닉하여 꽃과 또 다른 꽃인 자신을 합일시키고 싶은 욕망이 작용하여 이를 취하고자 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수로부인의 고향인 京師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꽃이 아니라서 관심을 유발시킬 수 있으며, 野生의 꽃은 철쭉이긴 하되 특수한 지역적 배경 때문에 평범할 수 없었으리라고 말하고 있다.¹⁷⁾

그러나 철쭉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나라 어디에서나 흔한 꽃이며, 京師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었으리라.

16) 박노준, 앞의 책, 206~207쪽.

17) 박노준, 앞의 책, 205쪽.

松都 남쪽에 進鳳山이 있다. 산 안팎에 두견화가 많이 피는데 세상에서 진봉산 철쭉꽃이라고 한다. 卞春亭의 시에 “산중에 많은 비슷비슷한 옛 절, 곳곳에 철쭉꽃이 봄바람에 만발한다.”라고 했다.¹⁸⁾

花岩은 靈通洞 어구에 있는데, 일명 花潭이라고 한다. 화담은 푸른 벽에 우뚝 서 있어서 마치 그림병풍을 세워놓은 듯하다. 바위 사이에는 철쭉이 있어서 봄이 되면 만발하여 붉은 꽃이 물에 어린다. 연못 오른 쪽에는 작은 바위가 있고 사면은 우뚝 솟아 있는데, 그 위 사방에 또한 장막을 두른 듯한 구멍이 있다.¹⁹⁾

당시 慶州가 서울이라고는 하지만 복잡한 도시였다고는 볼 수 없다. 추측컨대, 큼지막한 요즘 읍내 정도의 규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본다. 또 아무리 컸어도 오늘날의 전원도시 모습이었을 것이다. 문밖만 나서면 어느 쪽으로나 山野에 접할 수 있고, 봄이면 어디서나 철쭉을 볼 수 있었으리라. 물론 수로부인이 남편의 부임길에 본 철쭉은 그와는 조금 다르다. 동해의 푸른 바다에 접해 있는 千丈이나 되는 석벽에 아름답게 피어 있는 꽃은 가관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게 어디에서나 지천으로 피어 있는 철쭉일 뿐이다. 그런데 구태여 위험을 무릅쓰고 그걸 꺾어달라고 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아무튼 꽃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꽃 그 자체를 탐했던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영태도 수로부인을 아름다움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동시에 수로부인에서 ‘헌화가’를 지엽적인 요소로, ‘자용절대’의 수로부인의 얘기를 중심 요소로 이해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姿容絶代’란 당대 견줄 만한 것이 없을 정도로 수로부인의 용모가 뛰어났

18) 松京南有進鳳山 山內外杜鵑花盛開 世稱進鳳山躑躅 卞春亭詩 山中古寺多相似 處處春風躑躅花(『大東韻府群玉』, 勝覽).

19) 長湍都護府 花岩在靈通洞口 一名花潭 潭在有翠壁峭立 如展畫屏 岩隙有躑躅 當春亂發 紅映水底 潭右有小岩四面如峭 其上四隅亦有張幕窠臼(『東國輿地勝覽』 卷12).

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자의 용모가 뛰어났다는 기록은 다른 조에서도 흔히 발견할 수 있는데, ‘자용절대’로 표현할 경우는 수로부인뿐이다. (중략) 이들 여자들은 ‘姿容艷美’나 ‘甚美’, ‘德容雙美’, ‘美艷無雙’으로 한결같이 ‘美’라는 글자와 결부되어 있지만, 각각의 조에서 그들의 용모가 중심내용으로 자리 잡고 있지 못하다. 반면에 ‘美’라는 글자와 결부되어 있지 않은 ‘姿容絶代’는 수로부인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표현이며, 그것이 노옹의 현화와 신물의 납치라는 원인으로 기능하고 있다. 수로부인 조의 이해는 ‘자용절대’를 고려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²⁰⁾

이처럼 그는 姿容絶代를 姿容艷美·德容雙美·美艷無雙 등의 아름다움의 개념보다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운위하고 있다. 이는 絶代라는 말에 무게를 둔 설명이라고 본다. 어쨌든 자용절대가 아름다움에 대한 극도의 찬사라는 점에서는 박노준의 견해와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姿容艷美德容雙美美艷無雙 등의 어휘보다 미적으로 높은 개념이라는 명확한 근거는 없다. 오히려 ‘姿’는 姿質(資質은 姿質로도 쓴다)을, 容은 美貌를 뜻한다고 보면, 능력과 용모가 시대를 넘어 뛰어난 여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렇다면 수로부인은 아름다운 용모에만 국한해서 설명할 것이 아니라, 그의 능력에도 관심을 두고 해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둘째는 巫女라는 것이다. 이 견해는 그가 강릉에 부임해 가는 길의 ‘晝膳’을 기우제의 司祭長으로 본다가, 深山大澤을 지날 때마다 靈物에 피랍되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고 있다.²¹⁾

그런데 강릉태수로 부임할 정도의 순정공 부인이 무당이라는 신분은 어울리지 않는다. 景德王의 부인이 順貞公의 딸이라는 삼국사기의 기록에 근거해서 ‘純貞公’과 ‘順貞公’이 동일인일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²²⁾ 孝成王은 聖德王의 아들이요, 孝成王은 아들이 없어서 자기의 동생 憲英을 태자

20) 이영태, 「수록경위를 중심으로 한 수로부인조와 현화가의 이해」, 『국어국문학』 제126권, 199쪽.

21) 金榮洙, 「郷歌와 山川祭儀의 相關性 考察」, 『한문학논총』 19권, 280쪽.

22) 李惠和, 「龍思想의 한국문화적 수용양상」, 고려대 박사논문, 1988, 89쪽.

로 삼았는데 이 사람이 곧 景德王이다.²³⁾ 純과 順이 같은 의미의 한자요, 삼국유사의 다른 부분에서는 이와 비슷한 혼용의 예는 많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순정공은 왕족이요, 꼭 그게 아니더라도 강릉태수라면 당시 신라의 신분으로는 높은 귀족층에 해당된다. 그런 사람의 부인이 무당이라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또 수로부인 설화는 순정공이 임지인 강릉으로 부임해가면서 무災를 물리치기 위해 祭儀를 행한 것이며, 수로부인은 무당으로서 기우제를 主宰했다는 주장도²⁴⁾ 어딘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어떤 지방의 驅灘祭儀는 그 지방의 수령이나 해당 수령이 지목한 사제가 하는 것이지 임지로 부임해 가는 여행자가 할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지방의 견우노인을 神官 즉 司祭者로 본다는 것도 무리 있는 주장이다.²⁵⁾ 사제자는 제의를 주관하는 사람인데, 꽃을 꺾어 바친다는 행위와 어울리지 않는다.

2. 牽牛老人

암소를 끌고 나타난 노인은 누구인가?

첫째, 禪僧이나 觀音의 화신으로 보는 주장이 있다.²⁶⁾ 이는 암소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한 얘기다. 소는 불교에서 진리를 뜻한다. 노인을 선승으로 파악한 연구자들은 소를 불교적 상징으로 본 것이다. 불교에서는 선승을 가리켜 牧牛者라고도 하며 그들이 수도하는 거처를 尋牛堂이라고 한 것도 이러한 배경 때문이다.

그러나 金東旭은 老僧이 아니라 老翁이라고 표기되어 있어 수긍할 수 없으며,²⁷⁾ 尹榮玉은 실제로 禪法의 전래가 혜능의 법손들에 의했다고 한

23) 景德王 諱憲英 孝成王同母弟 孝成無子 立爲太子 故孝成薨得嗣位 妃伊浪順貞之女也(『삼국사기』 신라본기 <경덕왕>조).

24) 김광순, 『헌화가』 김승찬 편, 같은 책, 277쪽.

25) 김영수, 앞의 논문, 앞의 책, 280쪽.

26) 김종우, 앞의 책, 28쪽.

다면 그 전래자는 道義인데, 그는 제37대 宣德王 5년(794)에 唐에 들어가 馬祖道一의 高弟 西堂智藏에게서 법을 얻었고, 憲德王 13년(821)에 귀국하여 선법을 일으키려 하였으나, 당시 신라에는 禪을 이해하지 못하여 받아들이지 않자, 제자 簾居에게만 진하게 되었으며, 禪風은 이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만하니, 노옹은 선종과 결부시켜 말하기는 곤란하다²⁸⁾고 했다.

둘째, 그 지방의 촌로나 촌장, 평범한 농부로²⁹⁾ 보는 견해가 있다. 아무도 오르지 못하는 천길 절벽 위를 오를 수 있다는 사실에 관련을 둔 설명이다. 그 지방에 사는 사람이면 그곳의 지리를 잘 알고 있으므로 험한 벼랑이라도 오르는 길과 방법을 알 수 있다는 것이며, 그래서 설사 노인이 비록 농사를 짓는 평범한 농부라고 하더라도 벼랑에서 꽃을 꺾어오는 일이 그다지 어렵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다. 따라서 노인이 촌로나 촌장이건, 또는 농부이건 그러한 일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농부촌로설의 문제는 ‘以杖打岸’과 ‘衆口鑠金’을 가르쳐준 노인의 신분에 전혀 들어맞지 않다. 농부촌로설은 헌화가의 서사부분에 관련된 노옹을 중심으로 해석된 견해일 때, 다소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누차 검토된 것처럼 헌화 부분과 용의 납치 부분은 떼어서 읽을 수 있는 서사물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읽혀야 할 이야기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노옹과 노인의 신분에 대해 논의하려면 먼저 그 양자 사이의 변별적 조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용 부분이 제외된 상태에서 헌화가만 가지고 논의를 하는 방식은 온당치 못하다는³⁰⁾ 문제가 그대로 남는다.

셋째, 노인을 超人, 太師的 技能人, 賢者 등으로 보는 견해이다.³¹⁾ 용이

27) 金東旭, 『韓國歌謠의 研究』, 을유문화사, 1984, 31쪽.

28) 윤영옥, 앞의 책, 168쪽 참조.

29) 윤영옥, 앞의 책, 171쪽.

최성호, 『신라가요 연구』, 문현각 1984, 76쪽.

박노준, 앞의 책, 201쪽.

30) 홍기삼, 앞의 책, 134쪽.

31) 강동학, 「헌화가의 심층」, 『새국어교육』 33-34합집, 한국국어학회 1981, 87쪽.

납치해간 수로부인을 찾는 방법을 알고 있을 만큼 지혜롭다는 점에 비중을 둔 주장이다. 노인은 일반적으로 오랜 인류의 지혜나 집단 무의식의 인격화로서 간주되어 신비적 원리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다.

노인·노옹을 그의 비범성으로 보아 超人이나 太師, 賢者로 보는 것은 그 실체를 신비적인 존재로 인정하고 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난해한 문제를 해석하지 않고 신화적 코드로 방치해놓음으로 해서 문학적 이해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리고 이것은 현화가의 이해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넷째, 노옹을 巫堂 또는 神官으로 보는 주장이 있다. 이는 수로부인을 무당으로 보는 견해와 맞물려 있다. 김영수는 산천제사와 기우 등 마을과 국가의 안녕을 위하여 제사를 주관하던 신관(혹은 무당)으로 파악하고 있다.³²⁾ 이 무당은 해당 지역의 사당을 관리하고 제사를 주관하는 전문적인 무당이며 그 지역의 정신적 지도자이다. 따라서 노옹은 암소를 끌고 우연히 지나가는 노인이 아니라 그 지역의 안녕과 기우제를 관장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다. 노옹의 정체를 추정할 논의 중에서 무당이 강세를 띤 것은 <헌화가>가 범세계적 구조를 지닌 <해가>와 같이 기록되어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만한 성덕왕대의 旱災 자료가 삼국사기에 있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해가>의 성격에 따라 <헌화가>를 기우제와 더불어 논의할 수 있었던 것이다.³³⁾ 비슷한 주장으로 金文泰는 老翁을 司祭로 보고 있다.³⁴⁾ 老翁·老人은 기우제를 주관하고 있는 수로부인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나타나서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범상치 않은 능력을 지니고 있음에 틀림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老翁·老人은 그 지역의 토박이로서 그 지역에서 기우제를 주관하는 사제일 가능성이 큰 것이다. 다만 제의 공간에 등장하는 司祭로, 또는 기우제를 주관하는 司祭로 보았을 때는 그럴듯하지만,

임기중, 『新羅歌謠와 記述物의 研究』, 이우출판사 1981, 344쪽.

32) 김영수, 앞의 논문, 앞의 책, 280쪽.

33) 이영태, 앞의 논문, 앞의 책, 194쪽.

34) 김문태, 앞의 논문, 앞의 책, 344쪽.

이도 또한 설득력이 미약하다. 설화의 문맥에서 보면 왜 제의가 베풀어졌으며 무슨 내용의 제의인지 전혀 설명이 되어 있지 않다. 성덕왕 때의 투홀가 많았다는 기록을 이끌어와 기우제라고 설명하는 주장도 있지만, 문맥에서는 그렇게 해석할 만한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 않는다.

다섯째, 고대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佛仙·巫의 세계를 터득한 탁월한 정신의 소유자라고 보는 주장이 있다.³⁵⁾ 암소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과, 비범한 능력이나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복합적 신분을 지닌 노인으로 파악하는 견해이다. 그는 『삼국유사』 권5 감통편의 仙桃聖母隨喜佛事 조의 경우를 들어 신라시대에는 佛仙巫의 경계가 뚜렷하게 구획되어 나타나기보다는 뒤섞이고 통합된 양상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으며, 중국에서도 세 종교가 하나의 의미로 통합되어 설명될 수 있다는 사실을 들어, 수로부인 설화의 노인은 복합적 역할을 수행하는 인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노인·노옹을 禪僧이나 觀音의 化身, 神仙이나 巫堂으로 보지 않았을 뿐이지 노인이 지니는 신비성을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다. 선승으로 보자니, 그때로 말하면 선종이 신라에 들어오기 전이요, 암소를 끌고 있다는 점을 들어 신선으로 보자니, 여인에게 꽃을 바친다는 것이 이율배반이요, 사제나 무당으로 보자니 설화의 문맥에서 그것을 짚어낼 만한 근거가 전혀 없다. 따라서 ‘복합적 역할을 수행하는 인물’로 본다고 할 때, 이것은 그의 비범성을 超人이나 太師, 賢者로 보는 경우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 그럴 때에, 이 설화의 주체는 수로부인의 얘기가 아니라, 노인의 얘기가 되고 만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 노인이殷나라 고종 때의 傳說이나 周나라 주문왕 때의 呂尙처럼 실체가 더 드러나야 할 것이다. 동시에 왜 그런 큰 재능을 가진 사람이 한 여인에게 꽃을 꺾어 바치고, 용에 붙잡혀간 여인을 구해주었을까. 절대적인 능력을 가진 인물치고는 너무 하찮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35) 홍기삼, 앞의 책, 120~139쪽.

3. 晝膳의 의미

金光淳이 ‘晝膳’의 語義 해석에 주안점을 두어 <獻花歌>를 해석하고 있는 것은 관심을 끌 만하다.³⁶⁾ 그는 晝膳의 의미를 『三國遺事』·『三國史記』·『高麗史』·『熱河日記』·『朝鮮王朝實錄』의 용례를 찾아가면서 晝膳은 帝王의 식사나 제례의식 때에 신에게 바치는 祭物을 뜻한다고 했다. 즉 膳은 帝王의 식사나 제례의 제물에 쓰이는 말이므로, 헌화가에서의 ‘晝膳’은 祭物을 뜻하며 신하나 일반인들에게서는 점심으로 ‘中火’를 구분하여 써야 한다고 했다. 다음의 예가 그것이다.

- 七年春三月旱 王避正殿減常膳 御南堂親錄因 秋七月 高僧智明 入陳求法
(三國史記 卷四 眞平王 七年 春三月條)
- 王宿感恩寺 十七日 到祇林寺西溪邊 留駕晝膳 太子理恭守闕 聞此事 走馬來駕
(三國遺事 卷二 萬波息笛)
- 是月 外膳不繼 內臟告竭 王減晝膳 左倉別監 尹平 北人也
(高麗史 卷二十四 世家 卷第二十四 高宗三年)
- 身爲輔相 席寵恣橫 不供其職 交結饗人 潛竊御膳 閔祥正訴先王于帝
(高麗史 卷一百一十一 列傳 卷第二十四)
- 王愛幸 常日爲老生 朝夕在左右 或命賦詩 或戲語 時賜御膳 至手調羹予之
(高麗史 卷一百一十四 列傳 卷第二十七)
- 二十六日 癸酉 朝霧晚晴 發九連城 行三十里 到金石山下 中火
(『燕巖集』 卷之十七 熱河日記 渡江錄 六月二十六日條)
- 中火於康永太家 永太年二十三 自稱民家 白皙美麗 能鼓西洋琴
(上全 六月二十八日條)

그러나 晝膳이 帝王의 점심식사로 쓰일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럴 듯한 근거를 밝히고 있지만 제물로 쓰인다는 사례에 대해서는 설명

36) 김평순, 「헌화가」, 김승찬 편, 같은 책, 265~278쪽.

을 하지 않고 있다.

中文大辭典(中國文化大學印行)에서는 ‘膳’자를 ① 具食也 ② 進美食也 ③ 煎和也 ④ 食也 ⑤ 生肉也 ⑥ 善也 ⑦ 與泉通(膳段借爲泉) ⑧ 或作饘 등으로 풀이하고 있다. 여기서 보면 ‘膳’이란 ‘갓추어진 음식’, ‘잘 차려진 음식’, ‘맛있는 음식’의 뜻이지 ‘제왕의 음식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왕은 어느 때를 막론하고 진수성찬의 식사를 하기 때문에 왕의 식사에는 자연스럽게 ‘膳’자가 나올 뿐 다른 의미는 없다. 때문에 제왕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음식을 잘 차린 식사를 膳으로 쓸 수 있다.

또 中文大辭典 ‘膳食’ 조를 봐도 ‘供具飲食(갓춘 음식을 드린다)’고 풀이 하면서, 『管子』의 용례 ‘勸子弟精膳食 問所欲求所嗜 此之謂老老(子弟는 정성스레 음식을 갓추기를 좋아하며, 바라는 것을 묻고 즐기는 것을 구해드려야 하니, 이를 일러서 敬老라고 한다)’ 들어 설명하고 있다. 이것을 보면 ‘膳’ 자는 꼭 제왕의 음식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잘 차린 음식을 가리키는 말이다.

다음으로 신에게 제사 드릴 때 차린 음식이나 제사의식으로 ‘膳’이 쓰인다는 것도 근거가 빈약하다. 앞서 中文大辭典에도 그러한 용례가 없거니와 三國史記 같은 데서도 그러한 용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예를 들어본다.

- | | |
|------------------------|---------------|
| ○ 二年春二月 親祀始祖廟 | (三國史記 儒理尼師今條) |
| ○ 三年春正月 拜瓠公爲大輔 二月親祀始祖廟 | (三國史記 脫解尼師今條) |
| ○ 世人以巫事鬼神 尙祭祀 故畏敬之 | (三國史記 南解次次雄條) |
| ○ 冬十月 北巡 親祀太白山 | (三國史記 逸聖尼師今條) |

『삼국사기』에는 사당에 제사를 지낸 기록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제사를 드릴 때는 祭需가 있기 마련이고, 그렇다면 ‘膳’ 자의 용례가 보일 만한데, 한 군데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무당이 제사를 지내는 경우나, 산천에 제사를 지내는 경우를 보더라도 ‘膳’ 자의 용례를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사실에서 본다면, ‘膳’ 자는 임금의 식사나 제사의 祭需로 쓰였다기보다는 일

반적으로 잘 차린 음식의 의미로 쓰였다고 봄이 좋을 것 같다.

Ⅲ. 성덕왕대의 사회적 배경

신라를 상·중·하 3시대로 나누었을 때, 하대는 경덕왕의 뒤를 이어 765년에 즉위한 혜공왕 때부터이다. 그러나 신라의 전성기라고 하는 중대, 즉 무열왕 때부터 혜공왕 때까지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전성기를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태평성대라고는 할 수 없었다.

신라는 660년(태종무열왕 7년)에 백제를, 668년(문무왕 8년)에 고구려를 멸하여 겉으로는 3국통일을 이룩한 셈이다. 그러나 신라는 태종 무열왕이 당태종과 약속했던 溟水(大洞江) 이남의 땅을 얻어내기 위하여 당나라와 끊임없는 투쟁을 해야 했다. 설상가상으로 백제나 고구려 유민은 물론 그 무렵에 생긴 말갈과의 전쟁도 끊이지 않았다. 그것은 文武王·神文王·孝昭王을 거쳐 聖德王에 이르기까지 70년에 가까운 긴 세월이었다. 그러다 735년(성덕왕 34년)에 당나라로부터 溟江 이남의 땅을 승인받게 되었다.

이 해(문무왕 17년, 677)에 唐은 舊王 寶藏으로부터 遼東都督 朝鮮王을 삼아 앞서 唐에 송치되었던 麗人들과 함께 遼東에 와서 遺衆을 慰撫安輯케 하였던 바, 寶藏은 후에 異圖를 품고 靺鞨과 밀통한다 하여 卍州(中國 極南地方)로 소환되었다가 거기서 돌아가고 말았다. 羅·唐의 무력적 충돌로 말미암아 唐의 감정은 일시 좋지 못하였으나 신라측의 겸양적 태도(謝過使의 파견)로 인하여 國交는 곧 復舊되어, 다음 神文王 때로부터는 使節의 交往이 빈번해지고, 聖德王34년(735)에는 唐(玄宗)이 新羅의 溟江(大洞江) 이남의 소유를 공인하게 되었던 것이다.³⁷⁾

37) 진단학회 편, 『韓國史』 고대편, 을유문화사, 1972, 623쪽.

신라가 삼국통일을 완성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어쩔 수 없이 치뤘던 唐과의 전쟁은 그 뒤 줄곧 양국관계에 暗影을 드리워 외교 교섭도 거의 끊어지다시피 했고, 唐帝國은 신라가 溟江(大洞江) 이남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결코 용인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드러냈다. 더욱이 성덕왕이 즉위하기 4년 전인 698년에는 고구려 유민들이 주체가 되어 靺鞨族의 原住地인 白頭山 북쪽 東牟山 일대에서 渤海를 건국, 신라와는 잠재적인 대치상태에 들어갔다. 그리고 삼국 항쟁 시기에 백제와 친선관계를 유지해왔던 일본은 백제 부흥운동군을 돕기 위해 대규모 병력을 파견, 663년 鎭江 하구의 白江에서 신라·당 연합군과 一戰을 벌인 일까지 있었다.³⁸⁾

백제와 고구려를 합병한 문무왕으로부터 성덕왕 때까지 신라는 많은 통일 의 대가를 치르고 우환을 겪어야만 했다. 당나라와의 갈등은 그만두고 내적으로도 혼란은 심심찮게 일어났다.

신문왕(681~692) 때에는 681년(신문왕 1년)에 대아찬 眞功 등의 모반이 있었고, 684년(신문왕 4년)에는 安勝의 조카 大文將軍이 金馬渚(지금의 익산 지방)에서 반역을 꾀하다 잡혀 사형을 당하자 나머지 도당이 관리들을 살해하고 고을을 점령하기도 하였다.³⁹⁾

통일신라는 확대된 全領土에 대하여 자연히 행정구획의 재편성을 실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재편성은 대개 文武王 7, 8년경(677~678) 당의 세력을 완전 구축할 때로부터 다음 神文王 7년(687)에 걸쳐 완성되었으니, 즉 9州·5小京의 형성이 그것이다. (중략)

國王은 때를 따라 小京에 巡駐하는 일도 있었으나, 통일신라로서의 國都는 의연히 동남방에 偏在하여 遠北·遠西의 地를 통합함에는 불편이 많았다. 神文王 9년(689)에 首都를 겨우 達句伐(大丘)로 옮기려 하다가 그것도 목적을 達하지 못하고 말았지만 신라의 國都가 썩 중앙지대로 진출하지 못한 것은 - 거기에 다른 事情도 있었겠지만 - 대개 귀족들의 安土重遷의 強靱한 보수주의에 기인한 바 많았을 것이다. 이것이 또한 통일신라의 운명을 단축시킨

38) 이기동, 「신라 성덕왕대의 정치와 사회」, 『역사학보』제 160집, 5~6쪽.

39) 『삼국사기』 신라본기 신문왕조.

중요한 원인의 하나가 되었던 것은 물론이다.

9주·5소경의 長官 및 副官은 역시 전일과 같이 중앙정부에서 파견되어 軍事·司法·賦稅 등 행정까지도 兼掌하였지만, 實務는 그 밑의 관리들이 분담하고 또 그들은 대개 그 지방의 土豪로서 임명되었을 것이다.

(중략)

당시 말단행정구역으로서 단위를 이루고 있던 것은 - 말할 것도 없이 - 村落 즉 '마을'이니, 촌락에는 村主가 있어 村落行政務를 맡아 보았다. 전국 촌락에 포함된 각 家族(大家族) 共同體에 대하여는 戶口의 優劣, 다시 말하면 擔稅力(擔供力)의 優劣에 의하여 9等分의 等級이 규정되어 있다.⁴⁰⁾

왕실에서의 반란이라든지, 고구려 유민의 반란 등은 여러 가지로 편하지 않았던 정치상황을 말해주고 있다. 달구벌로의 천도를 계획한 것도 지방 정치세력의 원만한 통제를 위한 것이었을 것이며, 이의 실패는 다시 그 문 제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설명해준다.

동시에, 삼국통일을 이룩하고 외견상 중앙집권적인 행정구역의 개편이 이루어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지방의 가족공동체나 토호세력이 실질적인 지방행정을 관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9주 5소경 설치에 따른 장관의 임명도 중앙정부에서 하고는 있지만 군사·사법·부세의 실질적인 업무는 지방의 토호가 맡아보았을 공산이 크다.

- 신문왕 4년(684) 안승의 族子 장군 大文이 金馬漕에서 반역을 꾀하다가 일이 발각되어 사형을 당하니 남은 도당이 대문의 죽음을 보자 관리를 살해하고 읍을 점령하여 배반하므로 왕은 將士를 시켜 물리치게 했다.
- 효소왕 9년(700) 여름 5월 이찬 慶永이 반역을 꾀했다.

성덕왕(702~736) 때의 삼국사기 기록을 보자.

40) 진단학회 편, 같은 책, 632~636쪽 참조.

※ 『삼국사기』에는 9주5소경의 행정구역 개편 시기를 신문왕 5년으로 기록하고 있다.

- 4년 겨울 10월 동쪽 州 郡이 흉년이 들어 유리분산하는 사람이 많으므로 사신을 보내어 곡식을 나누어 주었다.
- 5년 나라 안의 백성이 굶주리므로 창고의 곡식을 풀어 나누어 주었다.
- 6년 봄 정월 굶어 죽은 백성이 많으므로 조를 한 사람당 3승씩 7월까지 나누어 주었다. 2월 지진이 있었다.
- 14년 6월 큰 가뭄이 드니 왕은 河西州 용악거사 理曉를 불러 林泉寺 못 위에서 비를 빌게 하였던 바 과연 열흘 동안 비가 내렸다.
- 15년 여름 6월 가뭄기로 또 거사 理曉를 불러 빌게 하였더니 곧 비가 왔다.
- 20년 가을 7월 何瑟羅道の 丁夫 2천명을 징발하여 북쪽 경계에 長城을 쌓았다.
- 30년 여름 4월 일본국 병선 5백여 척이 바다를 건너와 우리 東邊을 습격하니 왕이 장병을 보내어 크게 부수었다.
- 32년 가을 7월 당 현종은 渤海말갈이 바다를 건너와 登州를 침략하므로 大僕員外卿 金思蘭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따라서 왕에게 開府儀同三司寧海軍使를 기수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말갈의 남변을 치게 하였는데, 그때 큰 눈이 한 길이 넘게 내려 막힘으로써 죽은 군사가 반이 넘었다.

삼국사기 기록을 보면, 성덕왕 때는 태평성대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학술 논문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성덕왕이 즉위할 무렵 신라가 처한 상황은 外見上 안정되어 있었다. 삼국통일을 성취함에 따라 百姓들이 오랜만에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안정과 평화를 누린 것은 사실이다. 다만, 통일될 때까지 1백 년간에 걸쳐 가혹한 생존전쟁을 치르는 동안 백성들은 몹시 피폐해졌고, 그간 사회의 분해 작용이 소리 없이 진행되어 가는 가운데 백성의 일부는 몰락하여 流民이 되었거나 노비 신세로 떨어졌다. 사실 백성들은 국가보위전쟁과 삼국통일 전쟁의 役軍으로서 장기간에 걸쳐 국가에 헌신적으로 봉사했고, 또한 통일기의 번영을 떠받치는 사실상의 주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勞苦에 비해서 생활의 진보는 뒤따르지 못했으며 오히려 唐의 제도를 모방한 律令정치가 차츰 강화

됨에 따라서 조세와 각종 課役에 한층 더 시달리게 되어 피폐한 모습을 보였다.⁴¹⁾

지방의 대가족 공동체는 擔稅力으로 중앙정부에 공헌하고, 또 전쟁시에는 병력을 동원하는 등 擔供力으로 국가를 도왔다. 이는 군사적 경제적으로 지방세력이 항상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 되며, 이러한 힘은 또한 유사시에 중앙정부에 대해 위협적인 세력이 될 수도 있었다.

9주 5소경이 완성된 신문왕 7년(687)부터 성덕왕이 즉위(702)까지는 15년이 걸린다. 신문왕의 행정구역 개편은 지방의 호족들을 통제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 9주 5소경은 실질적인 의미가 없었다. 지방세력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중앙집권적 정치를 펴는데 이렇다할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성덕왕 때에도 지방의 호족세력은 상당한 힘을 가지고 존치했으라고 추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호족의 성립과정은 골품제도의 붕괴와 관련된다. 골품제도가 무너지면서 지방의 대가족 공동체나 호족의 세력은 더욱 강화되었으리라고 보기 때문이다.

국가로부터 받은 촌주위전이 촌주 경제력의 맹아가 되는데, 촌주층에게 대단히 유리했던 점은 재지배자로서 다른 경쟁자가 없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관리자로서 촌주는 관리를 강제하는 존재 즉 국가권력의 약체화에 따라 실질적인 촌락지배자로서의 토호로 전화할 가능성을 가졌다. 8세기 말엽 이후 신라 지방통제의 이완은 촌주의 토호화에 절대적인 조건이 되었다. 촌주가 토호로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山林藪澤의 私占은 그 경제적 기반의 강화에 큰 역할을 했다. 또한 촌주가 토호로서 성장해가는 전제로는 무엇보다 먼저 族團의 편성이 요구되었다. 이때, 족단의 구성은 당연히 촌주의 혈연을 체로 하는데, 당시 여러 촌 중에서 가장 큰 혈연집단의 장이 촌주위답을 받는 촌주가 되었다. 해체되어 가는 혈연집단적 촌락을 토호가 그 족단의 힘을 기초로 재편성하여 지배해 갔다. 이것이 토호세력 형성과정에서 촌락이 변해가는 모습이었다.⁴²⁾

41) 이기동, 「신라 성덕왕대의 정치와 사회」, 『역사학보』 제160집, 5쪽.

혈연집단적 촌락의 성격을 말해준다. 토호가 촌락공동체의 기부장으로 국가권력에 대립하는 일면이 있다는 것이다. 더욱 그는 국가권력이 이완되었을 때에는 권력구조를 위협하는 존재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신문왕 때 완성한 9주 5소경은 원래 의도와는 달리 지방의 호족을 통제하기에 유명무실한 것이었다. 동시에 골품제도의 붕괴와 혜공왕 때부터 일어난 왕권다툼은 지방의 호족들의 세력구축의 발みが 되었다. 입지를 굳힌 호족들은 중앙정부에 대해 맞설 수 있었을 것이고 중앙정부는 이를 장악하기에 역부족이었을 것이다.

IV. 수로부인설화의 문맥

설화의 세계관은 언술 속에 명백히 드러나기보다는 함축된 형태로 나타난다. 설화의 언술은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으며, 직설적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것을 설화의 세계관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따라서 설화의 세계관이 주제니, 의식이니, 이데올로기니 하는 것들과 마찬가지로 설화로부터 해석되는 것임을 전제하지만⁴²⁾ 설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술 속에 함축된 의미를 찾아내야 한다. 우선 설화가 전승의 생명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흥미로운 이야기여야 한다. 동시에 함축적인 내용도 이에 못지않은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 함축적 요소란 교훈적·치리적·종교적인 내용인 수가 많다.

설화 수로부인은 우선 美艷絶代의 수로부인의 얘기이다. 무엇보다도 꽃과 미인의 얘기, 해룡에게 납치당한 미인의 얘기는 흥미를 끌기에 충분하다.

42) 한국역사연구회, 『나말여초의 호족의 연구동향』, 304~305쪽.

43) 송효섭, 『설화의 기호학』, 민음사, 1999, 33~34쪽 참조.

첫 번째 이야기는 미인 수로부인이 철쭉꽃을 본 데서 비롯된다. 왜 수로부인은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꽃을 꺾어달라고 했을까?

당시 신라는 9주 5소경 등 지방행정구역을 정비했다고 하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다. 중앙의 행정력이 지방정치를 장악할 수도 없었고, 지방정부는 안정을 찾기가 어려웠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촌락은 村主가 있어 촌락의 행정업무를 맡아보았고, 강력한 가족공동체의 영향 아래 있었다. 성덕왕이 즉위할 때만 하더라도 정치는 외견상 안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가족 공동체의 촌주나 호족이 지방정치를 장악하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일백여년 간의 통일전쟁을 치르는 동안 나라는 피폐할 대로 피폐해지고 많은 백성들은 유민으로 전락하기도 했다. 이런 때에 지방의 인심과 정치는 혼란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강릉 태수로 부임하는 순정공은 그렇게 평안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임지 사정은 어떠한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불안감도 있었을 것이다. 이는 여자의 몸으로 생면부지의 객지로 남편을 따라가는 수로부인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수로부인이 천길 낭떠러지의 철쭉꽃을 꺾어달라고 한 것은 그런 맥락에서 이해야 한다고 본다. 새로 접해야 하는 환경도 두렵고,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종자들이 자신에게 충성을 다할 지도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그래서 종자들의 충성심을 알아보고 싶었으리라. 천길 낭떠러지에 피어있는 철쭉꽃이 아름답다. 그러나 철쭉꽃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다. 흔한 철쭉꽃인데 낭떠러지에 핀 꽃이라 해서 무슨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는가. 이것은 철쭉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험한 천길 낭떠러지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 험한 낭떠러지는 험할지도 모르는 그들의 앞날을 상징하고 있다. 결국은 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험한 낭떠러지에 있다. 수로부인이 종자들에게 요구한 것은, 낭떠러지처럼 험한 길을 같이 하자는 요구이다. 이것은 주인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거센 풍랑 속에서 한마음으로 배를 타줄 것인가와 같은 물음이다. 그러나 그들은 주인을 위해 목숨을 걸 것 같지는 않았다.

그들은 마침 점심 식사 중에 있었다. 낯선 사람들의 행렬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든다. 누구의 행차인지 행선지가 어디인지 따지는 통과 의례도 있을 수 있다. 벼슬아치의 행차라고 하더라도 촌장이나 호족들 세도가 만만찮은 형편에서는 예상되는 일이다. 순정공의 행차에 마을 사람들과 촌장들이 모여들었으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된다.

두 번째 이야기는 수로부인이 동해의 용에게 납치당한 이야기이다.

수로부인조에 등장한 노인이 누구인가와 관련해서 또 하나 해결할 문제가 있다. 철쭉꽃을 꺾어 수로부인에게 바친 첫 번째 노인과, 용에 붙잡혀간 부인을 구하게 해준 두 번째 노인이 같은 사람인가 다른 사람인가의 문제이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두 노인을 같은 노인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므로 해서 이 노인은 더욱 절대적인 능력을 가진 노인으로 신격화되고 있다. 여기서 설화의 원문을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 從者曰 非人跡所到 皆辭不能 傍有老翁 牽犂牛而過者 聞夫人言 折其花 亦作歌詞獻之 其翁不知何許人也

(모시는 사람들이 모두 “사람이 발붙일 곳이 못 됩니다.” 하고 난색을 표하며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그때 곁에 마침 한 노인이 암소를 끌고 지나다가 부인의 말을 듣고 철쭉꽃을 꺾어 가지고 와서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바쳤으나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 없었다.)

○ 便行二日程 又有臨海汀晝饑次 海龍忽攬夫人入海 公顛倒墜地 計無所出 又有一老人告曰 故人有言 衆口鑠金 今海中傍生 何不畏衆口乎

(다시 이틀 동안 길을 가다가 바닷가 정자에서 점심을 먹는데 갑자기 龍이 나타나 부인을 끌고 바다로 들어갔다. 순정공은 발을 동동 구르며 땅을 쳐 보았지만 아무 방법이 없었다. 또 한 노인이 말하되 옛날 말에 여러 사람의 입은 쇠도 녹인다 하니 이제 바다의 짐승인들 어찌 여러 사람의 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습니까.)

‘傍有老翁’과 ‘又有一老人’에서 ‘老翁’과 ‘老人’의 동질성 여부 문제다. 老

翁과 老人이 같은 사람이라면, 뒤의 老人은 ‘一老人’이 아니라, ‘其老人’이라고 표기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이 동일인이라면 더 정확하게 ‘又有一老人告曰’이 아니라, ‘又其老翁告曰’이거나 ‘又老翁告曰’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일반적인 한문어법이다. 때문에 ‘傍有老翁’과 ‘又有一老人’에서의 노옹과 노인은 서로 다른 인물이라고 보아야 한다.

노인이 꽃을 꺾어다 바치며 노래를 불렀던 이틀 뒤의 일이다. 때문에 이 일은 이틀간의 노정을 거친 다른 마을에서 일어난 일이다. 점심을 먹고 있는데 동해의 용이 나타나 부인을 끌고 바다로 들어가 버렸다. 순정공은 당황하여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뿐이다. 인간 세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것이다. 아무리 용감하고 충직한 종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대책이 없다. 이때에 한 노인이 나타났다. ‘또 한 노인(又有一老人)’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는 ‘다른 한 노인’이다. 상황은 이틀 전에 점심을 먹으면서 일어났던 상황과 같다. 마을 사람이 모여들고 노인이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이다.

이 두 개의 이야기의 표층구조를 도시화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 수로부인이 철쭉꽃을 꺾어오라는 얘기는 ‘나를 위해 험한 낭떠러지 石嶂을 오를 수 있는가’라는 요구였다. 이는 위험을 무릅쓰고 주인을 위해 일할 수 있는가라는 충성심의 확인이다. 동시에 이것은 나를 위해 ‘노인으로 함축되어 있는’ 촌장이나 호족들의 세력에 맞설 수 있는가, 라는 물음도 된다. 그러나 종자들은 그럴 수 없다는 대답이었다. 그런데 의외로 문제는 간단히 풀렸다. 노인이 어려움을 무릅쓰고 꽃을 꺾어

바쳤다. 이는 촌장, 혹은 호족들이 순정공 일행에 호의적이며 갈등이 없다는 함축적 의미다.

두 번째 이야기는 더욱 상징적이다. 동해의 龍은 龍神을 섬기는 지방의 호족을 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성덕왕 34년에야 唐 玄宗이 大洞江 이남을 신라의 소유로 인정했던 점을 감안하면 신라의 지방의 호족을 완전히 장악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9주 5소경의 행정구역 재편도 당나라 세력을 몰아내기 위한 명분뿐이었지, 외부세력과 싸우면서 적지 않은 기간을 지방호족들의 힘에 의존한 바가 컸었다. 때문에 촌락과 지방정치는 가족 공동체의 촌주나 호족이 지방정치를 장악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때로 중앙 세력을 위협하기도 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용이 수로부인을 납치해 간 것은 지방호족의 행패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수로부인의 미모 때문일 수도 있고, 중앙정부에 대한 도전일 수 있다. 부인이 경험한 바다 속에서 있었던 일도 상징적인 표현이다. 칠보궁전의 음식이 향기롭고 깨끗하여 인간세상의 모습과 달랐다는 말도 지방호족의 사치스런 생활과 그 막강한 세력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海歌詞>의 핵심 내용은 ‘남의 아내를 빼앗아간 죄가 얼마나 크냐’이다. 때문에 마을 사람들을 동원한다. ‘衆口鑠金’이라는 민중을 이용한 협박이다. 이는 노인과 민중의 가치관이다. 국가의 안정과 질서, 순박한 민심을 소망하는 노인의 생각이 민중을 움직이고, 이것이 동해용으로 상징된 지방의 토호를 설득한 것이다. 여기에는 중앙정부와 지방 토호와의 상하 질서가 절실하다는 의미도 함축되어 있다. 그 후에도 자주 이런 일을 겪었던 깊은 산과 큰못은 토호들이 세력을 떨치고 있는 고을들이다. 그럴 때마다 이런 식으로 위기를 모면했다는 이야기는 생략되어 있다.

여기서도 노인인 촌장은 순정공 일행에 호의적으로 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두 개의 수로부인 설화의 내면구조 즉 심층구조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 | | |
|---|--|
| (1) 수로부인
(충성심)
↑ - (노인의 행동)
石嶂 | (2) 수로부인
(석방)
↑ - (노인의 지혜)
土豪 |
|---|--|

V. 설화의 문맥에서 본 <헌화가>

水路夫人 說話는 『三國遺事』 紀異條에 실려 전한다. 遺事라는 말은 『三國史記』를 전제하고 한 말이다. 『삼국사기』에 빠진 것을 기록했다는 뜻이고, 紀異는 神異한 것을 기록했다는 말이다. 一然是 『삼국유사』의 첫머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첫머리에 말한다. 대체로 옛날의 성인들이 禮樂으로 나라를 일으키고 仁義로 가르침을 베풀려하면 怪異·腕力·悖亂·鬼神에 대해서는 어디에서도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제왕이 일어나려 할 때는 符命을 받고 圖籙을 받음에 반드시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점이 있었고 그런 연후에야 큰 사변을 이용하여 천자의 지위를 장악하고 대업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러므로 黃河에서 河圖가 洛水에서 洛書가 나와 聖人이 일어났던 것이다. 무지개가 神母를 둘러싸 伏羲를 낳았고, 龍이 龍(신농씨 어머니)이 女登과 관계하여 炎帝를 낳았다.

(중략)

그러므로 삼국의 시조가 모두 신비스럽고 神異한 데서 나온 것이 어찌 괴이하다는 하겠는가. 이것이 紀異編을 모든 편의 첫머리에 신는 까닭이고, 의도도 여기에 있다.⁴⁴⁾

44) 敍曰 大抵古之聖人 方其禮樂興邦 仁義設教 則怪力亂神 在所不語 然而帝王之將興也 膺

神異한 기록을 맨 앞에 세운 이유를 말하고 있다. 제왕이 일어날 때는 符命을 받고 圖籙을 받아 반드시 보통 사람과 다름이 있고, 그런 연후에야 천자의 지위를 가지고 대업을 이룰 수 있다고 했다. 삼국사기에 빠진 신성성을 보냈다는 말이다. 동시에 일연은 「奇異編」을 여타의 興法·塔像·義解·神呪 등 어느 내용보다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따라서, 이 「紀異編」은 일연이 서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神異한 내용을 통해서 治理的 敎訓的 의지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왕권의 강화와 민심의 안정이 절실히 필요했다는 말이다.

수로부인 설화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앞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우선 성덕왕대의 시대적 상황이 그러했다. 전쟁은 끝났다고 하더라도 오랜 전란에 지친 어수선한 분위기가 채 가시지 않은 때였다. 중앙정부와 지방토호와의 불신과 갈등도 있을 수 있었다. 동해의 용이 수로부인을 붙잡아간 일 외에도, 순정공의 행차가 산과 못을 지날 때마다 많은 방해가 있었다는 것이 곧 그것이다.

설화의 문맥에서 보면, <현화가>는 남녀간의 애정을 노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견우노인은 禪僧, 山神靈, 巫堂, 司祭가 될 수 없다. 수로부인 설화에 나오는 두 노인은 촌장이라고 할 수 있다. 龍이나 悖逆을 저지르는 神物은 지방호족이다. 노인은 마을의 나이 많은 어른이나 촌장이다. 옛날 촌락은 노인이 힘의 균형을 이루는 하나의 축이었다. 촌락에서는 물론 지방정부나 호족도 이러한 덕망 있는 노인을 무시할 수가 없었다. 덕망 있는 노인은 민심을 모으고 여론을 조성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특히 노인은 후덕한 마음과 지혜로 갈등을 조정하고 안정을 추구하는 핵심적 역할을 했다. 수로부인의 설화에서 등장하는 노인이 바로 그런 사람

符命受圖籙 必有以異於人者 然後能乘大變 握大器成大業也 故河出圖洛出書 而聖人作 以至虹繞神母而誕羲 龍感女登而生炎 (중략) 然則三國之始祖 皆發乎神異 何足怪哉 此紀異之所以漸諸篇也 意在斯焉(『三國遺事』 <奇異> 第一.).

이라고 볼 수 있다.

VI. 맺음말

<獻花歌>는 수로부인 설화를 바탕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작품이다. 동시에 <海歌詞>와도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삼국유사』의 저작 의지를 보면 新異한데서 국가권력의 신성성을 찾자는 의도가 깊이 숨어 있다. 오늘날, 『삼국유사』는 우리의 언어문화나 풍속 불교문화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당시의 一然의 생각은 1권, 2권의 紀異編에 비중을 두고 있다. 그것도 국가의 질서 민심의 안정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紀異編 대부분의 내용은 그러한 맥락에서 따져봐야 한다. <헌화가>도 마찬가지다. <헌화가>라는 노래가 원래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 꽃을 꺾고 또 가사를 지어 바쳤다(折其花 亦作歌詞獻之)’는 수로부인설화에서 임의로 <獻花歌>라고 붙인 것이다. 물론 내용으로 보서는 <헌화가>가 틀림없다. 그러나 흔히 求愛를 할 때의 ‘헌화가’는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다.

노래는 노래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다. 때문에 그로부터 사회적 의미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향가 <헌화가>는 다르다. 노래보다 먼저 수로부인설화 내용의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고 紀異編의 창작의도와 전체적 맥락이 중요하다.

<헌화가> 연구는 수로부인 설화의 이해에서 가능하다. 수로부인 설화에서 순정공과 수로부인은 중앙정부의 상징이다. 순정공은 항거의 대상이요, 수로부인은 탈취의 대상이다. 동해용과 신물은 지방토호의 상징으로 중앙세력과 대칭을 이루고 있다. 노인은 사회의 안정을 피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헌화가>는 이런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수로부인 설화와 <헌화가>는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수로부인설화는 신라의 삼국통일 후에도, 오랜 동안 갈등과 혼란을 겪던 시대에 국가의 안정과 사회적 질서를 회구했던 내용의 이야기이다.

<헌화가>는 사랑의 노래가 아니라 우호와 충성의 마음을 표현한 노래다. 순정공 일행과 지방호족간의 불안 요소가 노인이 꽃을 꺾어 바침으로써 안정을 찾게 되는 것이다.

<海歌詞>에서 수로부인을 빼앗아간 龍은 龍神을 섬기는 지방의 호족이라고 볼 수 있다. 강력한 힘을 믿고 중앙정부에 도전하고 온갖 불법을 저지르는 무도한 세력이다. 따라서, 수로부인 설화에 나오는 노인은 촌장이다. 悖逆한 일을 저지르는 지방호족을 사람들을 동원하여 물리치는 마을의 나이 많은 어른이나 촌장쯤으로 생각할 수 있다. 노인은 촌락에서 힘의 한 축을 이루는 균형 감각이 있는 사람일뿐만 아니라, 항상 온화한 마음과 지혜로 갈등을 조정하고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다.

참고문헌

김부식, 『三國史記』.
 일 연, 『三國遺事』.
 노사신, 『東國輿地勝覽』.
 권문해, 『大東韻府群玉』.

김동욱, 『韓國歌謠의 研究』, 을유문화사, 1984.
 김승찬, 『鄉歌文學論』, 새문사, 1991.
 김운학, 『新羅佛敎文學研究』, 현암사, 1973.
 김종우, 『鄉歌文學研究』, 이우출판사, 1983.
 김현용, 『韓國古代說話論』, 새문사, 1984.
 박노준, 『新羅歌謠의 研究』, 열화당, 1990.

- 송효섭, 『설화의 기호학』, 민음사, 1999.
- 윤영옥, 『新羅詩歌의 研究』, 형설출판사, 1980.
- 임기중, 『新羅歌謠와 記述物의 研究』, 이우출판사, 1981.
- 장진호, 『新羅鄉歌의 研究』, 형설출판사, 1993.
- 조동일, 『三國時代 說話의 뜻풀이』, 집문당, 1990.
- 진단학회 편, 『韓國史』 고대편, 을유문화사, 1972.
- 최성호, 『新羅歌謠의 研究』, 문현각, 1984.
- 한국역사연구회 편, 『나말여초의 호족의 연구동향』.
- 홍기삼, 『鄉歌說話文學』, 민음사, 1997.
- 강등학, 「헌화가의 심층」, 『새국어교육』, 한국국어학회, 1981.
- 김광순, 「獻花歌」, 『鄉歌文學論』, 새문사, 1991.
- 김문태, 「獻花歌海歌의 祭儀文脈」, 『임하 최진원 박사정년기념논총』, 1991.
- 김선기, 「꽃받침노래」, 『현대문학』 153호, 1967.
- 김영수, 「鄉歌와 山川祭儀의 相關性 考察」, 『한문학논총』 19권.
- 이기동, 「신라 성덕왕대의 정치와 사회」, 『역사학보』 제160집.
- 이영태, 「수록경위를 중심으로 한 수로부인조와 헌화가의 이해」, 『국어국문학』 제 126권.
- 이혜화, 「龍思想의 한국문학적 수용양상」, 고려대 박사논문, 1988.

<투고일 : 2005. 12. 30. 심사일 : 2006. 2. 3. 심사완료일 2006. 2. 15.>

<Abstract>

A study on Hunhwaga(獻花歌) and a legendary aspect of Surobuin(水路夫人)

Kim, Eun-soo

This thesis is that research <Hunhwaga(獻花歌)>, Hyangga(鄉歌). Hunhwaga is a poem in Sungduk-king, the Silla dynasty. Nowadays, the poem have argue on various point.

Who is Surobuin(水路夫人)? Who is Gyununoin(牽牛老人)? Why he did pluck off a royal azalea blossom above a cliff? What is theme of the poem?

We need to research these subjects in a legendary point of view ; first of all, formally, we have to analyze from Hunhwa(獻花)-narrative litterature to Haega(海歌)-narrative litterature.

Following is a result that researched in this way.

Surobuin is only a noble woman, a peerage wife. Gyununoin is a village headman. He did pluck off the flower for loyalty and devotion. The theme of poem is a paternalistic contents for harmony in nation and inhabitants.

Keywords : Hunhwaga(獻花歌), Surobuin(水路夫人), Gyununoin(牽牛老人),
legendary point of view, noble woman, village headman,
loyalty, harmony